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24위 복자

복자 유문석 요한

(1784-1801)



유문석 요한은 1784년 전라도 전주의 초남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유항검 아우 구스티노의 믿음 덕분에 그의 집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유문석 요한과 그의 형 유중철 요한은 신앙 안에서 자라날 수 있었다.

1801년 박해 때, 초남이 마을에서는 유항검 아우구스티노가 가장 먼저 체포되었다. 이어 유중철 요한과 친척들이 전주 옥에 갇혔지만, 유문석 요한은 체포되지 않았으므로 여름 내내 전주 옥을 오가며 형에게 음식을 전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그해 9월에는 유 요한도 남은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 함께 순교를 약속했다. 형 수 이순이 루갈다의 옥중 편지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다.

“우리 다섯 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천주를 위해 순교하자고 언약하고, 철석같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결과, 우리의 뜻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 자연히 온갖 후회와 근심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주의 은혜와 은총은 쌓이고, 우리 마음에는 신락(神樂)이 더해지며, 아무 걱정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유문석 요한은 1801년 11월 14일에 형 유중철과 함께 교수형을 받았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부활 제3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66(65),1-2

온 세상이,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 2,14.22-33

화답송 시편 16(15),1-2 7과 5.7-8.9-10.11(◎ 11 7 참조)

◎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또는 ◎ 알렐루야.

○ 하느님, 저를 지켜 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주님께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주님.” 주님은 제 몫의 유산, 저의 잔. 당신이 제 운명의 제비를 쥐고 계시나이다. ◎

○ 저를 타이르시는 주님 찬미하오니, 한밤에도 제 양심이 저를 깨우나이다. 언제나 제가 주님을 모시어, 당신이 제 오른쪽에 계시니 저는 흔들리지 않으리이다. ◎

○ 제 마음 기뻐하고 제 영혼 뛰노니, 제 육신도 편안히 쉬리이다. 당신은 제 영혼 저승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께 충실한 이에게 구령을 보지 않게 하시나이다. ◎

○ 당신이 저에게 생명의 길 가르치시니, 당신 얼굴 뵈으며 기쁨에 넘치고, 당신 오른쪽에서 길이 평안하리이다. ◎

제2독서 1베드 1,17-21

복음 환호송 루카 24,32 참조

◎ 알렐루야.

○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주소서. ◎

복음 루카 24,13-35

영성체송 루카 24,35 참조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즈카르야의 노래

잠깐 한 가지를 짚어두고 갑시다. 루카 복음 첫머리에 서는 “존귀하신 테오필로스 님”(루카 1,3)께 이 책을 적어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테오필로스 님, 첫 번째 책에서 저는...”(사도 1,1)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루카 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 문제를 애써 다루지 않더라도, 두 책이 이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 권인 루카 복음은, 다른 이들이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 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처럼 이 책의 저자도 그 일을 자세히 살펴보고 적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목격자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격자가 전해 준 것을 정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루카 1,1-4) 루카 복음에 대한 설명서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사도 1,8)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두 책의 전체 구도에 따라 루카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됩니다.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 즈카르야가 성전에 있을 때, 그에게 요한의 탄생이 예고되는 장면입니다. 요한의 탄생 예고와 예수님의 탄생 예고의 비교는 대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나이 많은 엘리사벳과 처녀인 마리아, 믿지 않은 즈카르야와 믿었던 마리아...

마태오 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며 아브라함의 자손”(마태 1,1)인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요셉까지 이르는 족보 이야기로 시작하는 반면, 루카 복음은 성모님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가브리엘 천사

가 성모님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말씀도 마태오 복음 1장 21절에서는 요셉에게 전해지는데, 루카 복음 1장 31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전해지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리아의 노래가 즈카르야의 노래보다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진 지 여섯 달이 되었을 때 마리아가 찾아가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라고 노래를 부르고, 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은 다음에 즈카르야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라고 노래합니다.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즈카르야는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믿었기에 선포할 수 있었고, 즈카르야는 믿지 않았기에 선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면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없이는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즈카르야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래에서 요한에 대해 말하는 부분은 짧습니다. 노래의 앞부분에서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하여 힘센 구원자를 일으키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의 탄생도 얼마 남지 않았고, 그러기에 아기(요한)가 예언자가 되고 길을 준비하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자면, 즈카르야는 요한이 태어남을 기뻐하지만 그가 노래하는 것은 하느님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어찌면 즈카르야가 마리아보다 앞서 노래를 할 수 없었던 것이겠지요. 🌀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

「교회헌장」 제37 항

평신도와 성직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교회헌장」 제 37항은 서로의 시각에서 그 관계를 성찰합니다. 첫 문장에서 공의회는, 1917년 법전을 참조하여, 평신도들이 교회의 영적 보화인 하느님 말씀과 성사 배령을 목자들에게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그들에게 봉사하는 것과 동시에, 평신도들도 그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느님 백성의 형제들 사이에 갖는 자유와 신뢰로 필요한 것과 바라는 것을 목자들에게 밝혀야 합니다.

평신도들은 특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 교회에 유익한 것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권한과 의무를 갖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기구들을 통하여 평신도들은 솔직하고 지혜롭게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야 합니다. 공의회 후에 이런 취지에서 교구와 본당에 사목평의회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최근에 강조되는 시노드 교회의 정신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다만 대립의 관계가 아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러한 관계 안에서 요청되는 평신도들의 의무에 관해 말합니다. 먼저 평신도들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거룩한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의 스승과 지도자로 교회 안에서 결정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또한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목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봉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느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이에 대한 목자들의 의무를 언급합니다. 목자들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들이 갖는 품위와 책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증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 언급은 제도적 규정보다는 윤리적 책무의 성격을 지닙니다. 따라서 목자들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평신도들의 현명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고 그들에게 교회의 봉사 직무를 맡깁니다. 또한 행동에 자유를 주고,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격려하며, 그들의 요청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평신도들과 목자들의 친교에서 교회의 선의를 기대할 수 있다.
의정부교구 사목평의회 모습

이상에서 언급한 평신도들과 성직자들의 권리 및 의무와 관련해서, 공의회는 무엇보다 서로가 친숙하게 교류할 때 교회에 많은 유익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공의회가 표방하는 정신에 평신도와 목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럴 때 평신도들은 책임감과 열성으로 목자들의 활동에 결합할 수 있고, 목자들 또한 평신도의 경험에서 도움을 받아 영적이고 현세적인 모든 일에서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며, 하느님 백성 전체가 세상에 대한 자기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

깜뽕루엡 수상마을 정착 지원사업



깜뽕루엡 수상마을

존경하는 본당 신부님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실망과 슬픔 속에서 길을 떠났지만, 그들의 곁에는 이미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알아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길 위에서 말씀을 풀어 주시던 그분께서는 저물녘이 되어 제자들의 집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루카 24,32)

저는 이 복음을 묵상하며 캄보디아 바탐방 지목구 깜뽕루엡 수상마을의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집에서 바람과 비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가 내리면 물이 스며들고, 바람이 불면 집이 크게 흔들려 온 가족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어떤 아이는 책이 젖지 않도록 품에 안고 잠이 들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먼저 비를 피해야 하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게다가 금어기에는 수입이 끊기고, 정부 정책에 따라 머지않아 물 위를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지금,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집이 꼭 필요합니다. 그들의 삶의 길 위에도 주님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아직 그분을 또렷이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엠마오 이야기의 결정적인 순간은 ‘초대’였습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이 한마디의 초대가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우리 삶 안으로 초대할 수 있습니다. 깜뽕루엡의 한 가정을 위해 집 한 채

를 지어 주는 일, 그것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난 주님을 집 안으로 모셔 들이는 일입니다. 그 집 안에서 한 아이는 처음으로 비 걱정 없이 책을 펼칠 수 있고, 한 가족은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 수 있습니다. 흔들리던 삶이 멈추고, 불안이 평화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집 한 채는 한 가족의 삶을 바꾸고, 동시에 그 집을 짓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단지 집 한 채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마을 하나 만들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 아이들이 웃고, 이웃이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 위에서 불안하게 흔들리던 삶이 아니라, 땅 위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마을 하나’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미래를 세우고 있습니다. 혹시 한 본당이 한 가정을 풀어 줄 수는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 가족의 집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 응답이 모여 하나의 마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분 한 분의 작은 정성도 큰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의 사랑은 벽돌 한 장이 되고, 우리 모두의 마음은 한 가정의 지붕이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오늘도 우리의 길 위에서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며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하십니다.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깜뽕루엡의 한 가정을 위해 집 한 채를 선물해 주십시오. 집 한 채를 짓는 데에는 약 1,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엠마오의 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마쳐주시리라 믿으며… 캄보디아 선교_배준희 스테파노 신부



가톨릭 하상업(가톨릭페이) 후원 QR접속 → 10,000원 (수량증액 가능) → 비고란에 ‘기억의 탑’에 등재할 이름 기재

계좌이체 후원 우리은행 1005-904-698231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문의 031-850-1480 의정부교구사회복지회





**교구
소식**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5/4(월)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최웅 베네딕도, 박노영, 김희숙 문의 031-850-1507(주말, 공휴일 휴무)


성소주일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4/26(주일) 13:30 장소 혜화동 대신학교

제39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시 5/15(금) 19시~17(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신청 ▶


고양 용머리 성역화를 위한 도보 순례

일시 6/6(토) 장소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 터-절두산-새남터 총 18KM
 인원 80명 모집 4/12(주일)~30(목)까지(선착순, 회비 입금 순)
 회비 15,000원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교구 홈페이지 또는 순교자공경회 다음카페 신청서 다운로드 ▶


의정부교구청 미화 직원 모집

인원 1명 마감 채용시까지
 서류 이력서, 교적사본 근무시간 8시~12시 (주5일 20시간 / 시간자유선택가능)
 우편접수처 및 근무처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3층 관리국 (근무처: 교구청)
 문의 031-850-1426 의정부교구청 관리국

신앙 자서전 '나의 삶과 신앙 이야기' 지원자 모집

대상 80세 이상(1946년생 이전) 기간 4/19(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문의 031-850-1448 의정부교구 노인사목부 신청 ▶ 

2027 WYD 의정부교구대회 청년 DMZ 평화의 길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2)
 일정 5/22(금)~25(월) 14시 [3박4일]
 대상 평화를 사랑하는 청년(45세까지)
 인원 선착순 160명(순례비 입금 순)
 회비 5만원, 등록시스템 신청 → 회비 입금 → 접수 완료
 문의 031-850-1502 WYD 의정부교구대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신청 ▶ 

제13회 삶의향기 원고 공모전 「평화와 화합」

의정부교구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형식 수필, 편지글 200자 원고지 기준 7매 이내(한글 프로그램 작성 시 A4 1장 이내, 11pt, 줄 간격 160%)
 ※ 성명, 세례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메일 gongmo@uca.or.kr / 우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61 천주교의정부교구청 4층 홍보국
 기간 4/19(주일)~7/26(주일) 발표 8/16자 후보와 교구 홈페이지 ※ 수상자는 개별통지
 시상 최우수(1편) 50만원 / 우수(2편) 각 30만원 / 장려(3편) 각 20만원
 ※ 참가 작품 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자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1-850-1433 홍보국

미사 · 피정 ▶▶

의정부교구 성령대축제

일시: 5/2(토) 9시~17:30
장소: 남양주체육문화센터(남양주 다산지금로 91)
미사: 손희송 베네딕도 주교
강사: 김재덕 베드로 신부, 한연흠 다니엘 신부
회비: 5천원 (티켓 구입)
문의: 010-9697-9004, 010-9297-8821

본당 제 단체를 위한 1일피정 및 대관 안내

예수성심전교수도회 한국관구 본원(고양시 덕양구)에서 본당 제 단체들을 위한 1일 피정 및 장소 대관을 하오니 관심이 있으신 제 단체들은 문의 바랍니다.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가정성화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5/16(토) 11시~17(주일) 16시
대상: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분들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회비: 9만원 (사전접수자만 피정가능)
문의: 010-5490-5345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플정

일시: 매월 마지막(토) 14시~(주일) 14시
회비: 2만원(1박2일 3식, 청소년 무료)
장소: 초정성령회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 셔틀버스 운행(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혼인성소찾기 피정 / 최영민 신부(예수회)

신청: 다음카페, oh oh my half
문의: 010-3173-2665

제주 '푸른꿈 제주섬' 피정에 초대합니다.

강우일주교와 함께하는 섬, 성지순례, 말씀초대
일시: 4/28-30, 5/23~25, 10/22~24
장소: 성 이시돌피정의집(주최: 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가족, 본당(구반장, 사목위원)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일 기도회

주제: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일시: 4/24(금) 21시~12: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강사: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이주, 해양사목)
문의: 010-2127-0032

부활 축제 치유 대피정 (1박2일)

일시: 5/8(금) 18시~5/9(토) 17:30
강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월기 프란치스코 신부, 송봉모 토마스 신부, 김성기 안드레아 신부, 이창진 아폴레오 신부, 양창우 요셉 신부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숙식 무료)
문의: 삼성산 사랑의 봉사회 010-3310-8826

길음 아가페성령기도회 수요부활특강

일시: 매주(수) 18:30~20:30, 길음동 성당 소성전
4/22 윤민재 신부, 4/29 김정희 수녀, 5/6 한연흠 신부, 5/13 김기화 신부
문의: 010-9248-8151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 이시돌 목장에서 쉬과 함께 제주의 봄여행과 한라산, 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추자도 성지순례: 5/16(토)~19(화)
한라산철쭉, 자연순례: 5/2(토)~4(월), 5/8(금)~10(주일), 5/11(월)~13(수) 5/12(화)~14(목), 5/21(목)~23(토) 5/23(토)~25(월), 5/28(목)~30(토) 6/5(금)~7(주일), 6/13(토)~15(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성경완독: 6/19(금)~27(토), 7/24(금)~8/1(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플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5/15(금)~18(월), 6/19(금)~22(월), 7/17(금)~20(월), 7/31(금)~8/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본당별 출장피정 가능)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제주순례: 5/15(금)~17(주일), 6/19(금)~21(주일), 7/3(금)~5(주일), 7/10(금)~12(주일), 7/17(금)~19(주일)
우도: 7/24(금)~26(주일), 7/30(목)~8/2(주일)
추자도 성지순례: 5/4(월)~6(수), 6/4(목)~7(주일), 6/8(월)~11(목), 9/4(금)~7(월), 9/11(금)~14(월)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교육 · 모집 ▶▶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화상영어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수업(회화, 여행영어 등)
주최: (재)대구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문의: 053-593-1273

2026년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채용

접수: 5/10(주일)까지
분야: 영상PD, 편집, 기자, 총무, IT, 아카이브, 광고영업, 선교후원, 기술
문의: 02-2270-2116, 채용홈페이지 참조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6 후기)

모집: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석사과정, 원서 접수: 5/4(월)~15(금) 17시
입학전형: 6/1(월) 14시
문의: 02-3147-8156, 02-3147-8664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채용

분야: 영상 홍보/번역/행정 사무(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마감: 4/30(목) 14시 접수 서류까지
문의: 이메일 mano@cbck.kr

성가발성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교수 직강
일산 시스티나음악원: 매주(금) 11시
문의: 010-9842-8818

피에타스 가톨릭시니어싱어즈(알토, 베이스)단원 모집

현재 성가대 활동중이거나, 경험 있으신 교우
교구활동 및 음악미사 봉헌
장소: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이경원 베드로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사)한국카리타스협회 직원 채용

분야: 국내 사회복지 1명 (사회복지사 자격증, 실무 경력자 우대)
접수: 5/4(월) 18시 접수 서류까지
ckna@caritas.or.kr
※ 홈페이지 www.caritas.or.kr 참조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곶벚꽃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첫째(주일) 14시	성 보나벤투라 수도원(서울 혜화동)	010-4344-1997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청소년·청년 남자 수도 생활 성소자		010-5195-3217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6 후기 신입생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접수: 4/27(월)~5/10(주일)
면접: 5/29(금), 홈페이지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홈페이지 <https://ged.catholic.ac.kr/ged/index.do>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4/13(월)~30(목) / 전형: 5/16(토)
문의: 02-705-8668-9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해밀 여성 장애인 이용자 모집

등록 장애인중 지적장애를 수반한 중증/중복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 결과 충족 (성인 240점이상 / 아동 190점 이상)
소재지: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인원: 4명
문의: 031-965-0028, www.haemil.or.kr

횡성도미니코피정의집 주방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가톨릭신문사 신입 / 경력직원 모집

분야: 취재기자, 신문 홍보·광고, 기획
접수: 4/21(화)까지
홈페이지 <http://office.catholictimes.org> 참조

가톨릭 다운 합창단원 모집 - 혼성 합창단

연습 일시: 매주(화) 20:30~10시
장소: 대화마을 성당
문의: 010-5275-3388, 010-6422-7519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모집: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플루트, 트럼펫, 트럼본, 타악기 등
일시: 매월 마지막주 (주일) 13:30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일산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자유곡)
문의: 010-4856-2596

안내 · 기타 ▶▶

코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상담자: 010-9916-5798 노경덕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와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7/3(금)~13(월) 조지아, 아르메니아(499만원)
7/7(화)~11(토) 필리핀(165만원)
7/15(수)~26(주일) 성모발현지(635만원, 아시아나)
8/10(월)~20(목) 이탈리아(545만원)
신청/문의: 02-2281-9070

일본 성지순례

5/18(월) 일본 북해도 성지순례 4일
5/27(수) 일본 아끼다 성모성지순례 4일
지도 신부 동행
문의: 성심여행사 010-5909-5997

그리스도의 레지오 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7월 / 캐나다 성모성지(9박10일)
11월 / 멕시코&칸쿤 성모성지(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성지순례

6/10(수)~21(주일) 동유럽4개국(KE)
6/30(화)~7/11(토) 스페인-루르드-파티마(KE)
7/6(월)~14(화) 이탈리아 남부소도시(KE)
7/13(월)~19(주일) 루르드에서 일주일(LH)
7/14(화)~17(금) 일본 북해도(KE)
8/3(월)~11(화) 아시아에서 일주일(KE)
문의: www.cpbctour.co.kr, 1551-1053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11(화) 유럽4개국 성모3대 발현지(12일)
8/13(목)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2일)
9/7(월) 산티아고 117km 도보 순례(12일)
9/8(화) 이탈리아 일주 (전대사 특전)(11일)
10/12(월) 동유럽 5개국 체독폴오형(12일)
10/14(수) 이탈리아 프랑스 메주고리에(12일)
10/19(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회관 619호
※ 홈페이지 www.catholic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6/23(화) 김대건 신부님의 발자취(5일, 160만원)
(장춘, 길림, 이도백하, 백두산, 용정, 연길, 도문)
7/7(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60만원)
7/16(목)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제헌절 연휴)
9/14(월)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69만원-추석연휴)
10/12(월) 발칸3국 및 메주고리에(10일, 498만원)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62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신/간/소/개

내적 치유의 여정
겉옷을 벗어 던지고

다시 빛나는 순간을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당신의 운명의 책에서 한 페이지가 덮이면, 동시에 다른 한 페이지가 열리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당신에게는 여전히 찬란한 삶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2막에서 끝났다고 믿었던 드라마는 끝나지 않고 분명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희망을 품고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길 권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 이 책을 만나든, 지금 어디 서있는지 되돌아보고, 다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어떤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지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억눌리고 낙담한 모든 이들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려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분문 중에서

가에타노 피콜로 | 이상훈 옮김
면수: 192면 | 12,000원
031-850-1533 의정부 바오로딸

평화와 화합

제13회 삶의향기
원고 공모전



04
·
19

DIocese of Uijeongbu

07
·
26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마태 5,9)

의정부교구 신자를 대상으로 신앙 체험 수기를 공모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하느님의 은총으로 변화된 삶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 은총을 체험하신 여러분의 소중한 신앙 체험을 나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식 수필, 편지글 200자 원고지 기준 7매 이내
(한글 프로그램 작성 시 A4 1장 이내, 11pt, 줄 간격 160%)
※ 성명, 세레명, 본당, 연락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 이메일 gongmo@uca.or.kr
우 편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261 천주교의정부교구청 4층 홍보국


기간 4/19(주일) ~ 7/26(주일)

발표 8/16자 주보와 교구 홈페이지 ※ 수상자에게는 개별통지 합니다.

시상 최우수(1편) 50만원 / 우수(2편) 각 30만원 / 장려(3편) 각 20만원
※ 참가 작품 수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자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1-850-1433 홍보국

www.uca.or.kr

 천주교의정부교구

PAX ET CONCORDIA



천주교의정부교구 **행주성당** 성모순례지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성모뫼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요일	17:00	월, 화, 수, 목, 금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일	09:00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간	매월 첫 금요일 15: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4월 21일 정봉열 안셀모
23일 배현숙 헬레나

공 지 / 단 체

- 5월 성시간
일 시: 5월 1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그동안 오후 3시에 봉헌되던 성시간 시간이 5월부터 오전 11시 미사 후로 변경되어 봉헌됩니다.
- 5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5월 2일 토요일 오전 11시
- 5월 병자 영성체
일 시: 5월 7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4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4월 26일 주일 오전 11시 교중 미사 후
- 성소 주일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성소 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화요일 저녁 미사 시간 변경 안내
그동안 화요일 오전 11시에 봉헌되던 미사 시간이 5월부터는 화요일 저녁 7시로 변경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사순저금통 회수
사순시기 동안 정성껏 모으신 저금통을 4월 26일 까지 가져 오시어 성당 뒤편에 마련된 통에 봉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납부 및 책정
교무금은 성당의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위해 신자 각 세대별로 매월 일정액을 봉헌하는 것입니다. 2026년 교무금 책정을 아직 못하신 세대는 사무실에 오시어 책정을 하신 후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 성당 총 세대 수: 84세대
교무금 책정 납부 세대: 40세대(책정율 47.62%)

우리들의 정성(4/6 - 4/12)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4건 470,000원
주일헌금 1,129,000원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	--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본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감사헌금
김남일 300,000원 김승한 100,000원
이동준 200,000원 황은순 10,000원
최진이 50,000원



(후렴) 주 님, 당 신 은 저 에 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 나이다.